

## 햄펠, 설명, 김재권<sup>†</sup>

이 재 호<sup>‡</sup>

이 논문에서 필자는 20세기 중반 이후로 설명에 대한 김재권의 생각이 변해 온 과정과 같은 시기형이상학에 관한 분석철학자들의 생각이 변해온 과정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분석적 전통 하에서의 형이상학의 위상 변화가 어떻게 김재권의 철학적 작업과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어】 햄펠, 김재권, 설명, 기술

---

<sup>†</sup> 이 논문의 제목은 김재권의 1999년 논문의 제목, “햄펠, 설명, 형이상학” (Kim, 1999)을 변형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논문이 김재권 교수를 추모하기 위해서 쓰여진 논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설명 이론의 “형이상학화”에 대한 김재권의 기여를 강조하기 위해 이런 제목을 붙였다.

<sup>‡</sup> 중앙대학교 부교수, jaeho.jaeho@gmail.com

## 1. 설명에 대한 철학적 논의의 역사<sup>1)</sup>

서양 철학에서 설명 이론의 역사는 분석철학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방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 (1) 설명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접근에서 설명에 대한 밀적 접근으로 이행하였고, 설명에 대한 밀적 접근에서 다시 설명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접근으로 이행하고 있다.
- (2) 설명과 기술(description)은 다른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해 이들이 반드시 다른 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행하였다가 결국 이들은 다른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다.

필자는 이 두 방식이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논의의 단순성을 위해 (마지막 절 이전까지) 우리는 주로 첫번째 요약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두 철학자, 즉 C. 햄펠과 김재권을 이 구도에 맞춰 성격 규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햄펠은 설명에 대한 밀적 접근으로의 이행을 극단화한 철학자이며, 김재권은 햄펠에서 출발해 (현재 진행중인) 설명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접근으로의 점진적 이행을 촉진한 철학자이다. 잘 알려진 바대로 김재권은 햄펠의 제자였다. 제자가 스승의 업적에서 출발해 스승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은 철학사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

필자가 “설명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접근”이라고 부르는 것은 설명적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직접 경험될 수 있는 현상 너머의 형이상학적 장치들에 호소하려는 시도들이다. J. M. E. 모라브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 이론, 즉 4원인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2)</sup>

---

1) 이 절의 많은 부분은 필자의 논문 “아리스토텔레스, 뒤옴, 밀, 그리고 설명에 관한 네 번째 길”(이재호, 2014)의 1절에서의 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C. A. 프리랜드가 강조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 학자들은 사실상 만장일치로 사원인설이 설명 이론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Freeland, 1991, p. 49)

비록 다양한 aitia가 실체의 설명뿐만 아니라 실체의 측면들을 다루지만(cover) 이 네 개의 유형의 주된 구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의 본성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럴듯하다. 이런 분석을 위해서는 (전형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체에 대한 다음의 성격 규정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자기 결정된 목적을 향해 스스로를 움직이는 고정된 구조를 갖는 요소들의 집합. 이 성격 규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요소(구성 요소), 구조, 운동의 작용, 그리고 목적이다. 이들은 대략적으로 잘 알려진 4원인에 해당된다. (Moravcsik, 1974, p. 5)

D. 루벤이 강조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론은 직접 관찰 불가능한 현상 너머의 형이상학적 장치, 예컨대 목적과 같은 것에 호소하는 설명 이론이다.<sup>3)</sup> 적어도 중세까지 서양철학의 역사에서 설명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주류 이론이었으며 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근대 이후, 특히 경험론적인 사고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적 접근 방식에 대한 반발이 힘을 얻게 되었는데, 이 경향은 새로운 설명 이론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설명 개념에 대한 철학적 무시 또는 제거주의의 형태로 나타났다.<sup>4)</sup> 이런 경향성을 대표하는 철학자는 P. 뒤뮐이다. S. 사이로스는 다음과 같이 뒤뮐의 아이디어를 설명한다.

뒤뮐은 설명이 과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의 문제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현상의 집합에 대한 설명은 실재(reality)를 베일과 같이 덮고 있는 외양(appearance)을 벗겨내어 실재 자체를 보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뒤뮐에게 있어서 ‘외양의 베일’ 너머를 보려는 아이디어는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한다. 과학은 경험에만 관련되며 자체로 과학은 설명이 아니다. 과학은 적은 수의 원리로부터 연역되는 수학적 명제들의 시스템이며 이것의 목적은 경험적 법칙의 집합을 가능한 한 단순하고 완전하며 정확하게 재현하려는 것이다. (Psillos, 1999, p. 29)

- 
- 3) 루벤의 아리스토텔레스 설명 이론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모라브직의 해석에 기반해 있다. (Ruben, 1990, p. 85)
- 4) 루벤이 강조하듯이 흄스, 베이컨, 로크, 버클리, 흄 등의 영국 경험론 철학에서 이렇다 할 설명 이론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Ruben, 1990, p. 111)

뒤헴의 아이디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현상의 설명은 현상의 기술(description)과 구분되어야 한다. 현상의 설명은 현상 너머의 어떤 것에 호소해야 하지만 기술은 그것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 과학은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라 현상을 가능하게 단순하고 완전하게 체계적으로 기술하려는 작업이다. 결국 뒤헴에게 있어서 “과학적 설명”이라는 표현은 형용모순 이상은 아니게 된다.

경험론의 전통 속에서 “과학적 설명”이라는 개념을 진정한 철학적 개념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는 J. S. 밀에 이르러서야 발견된다. 밀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정의한다.

설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의 법칙을 원인의 법칙으로부터 도출하는 연역 작용 ... 어떤 개별적인 사실은 그것의 원인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즉 그 사실의 산출이 하나의 사례가 되는 법칙 또는 인과의 법칙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된다고 일컬어진다. 따라서 화재는 가연성 물질의 더미에 떨어진 스파크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설명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자연의 법칙 또는 제일성(uniformity)은 그 법칙이 그것의 사례가 되고 그것으로부터 연역 가능한 또 다른 법칙 또는 법칙들이 지적되었을 때 설명되었다고 일컬어진다. (Mill, 1963, p. 464)

이 구절에 나타나는 밀의 설명에 대한 생각은 앞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접근이라고 부른 아이디어와는 전혀 다르다. 밀의 설명 개념에서 핵심적인 것은 피설명항이 규칙성 또는 제일성으로서의 법칙에서 연역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현상이 그 현상이 사례가 되는 규칙성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될 경우 설명된다는 아이디어는 설명이라는 것이 현상 너머의 관찰 불가능한 어떤 것에 호소하는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뒤헴이 공유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오히려 이런 생각은 어떤 개별적인 현상의 설명은 그 개별적인 현상을 보편적인 패턴 하에 귀속시키는 것을 통해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시스템 안에 포섭하는 행위라는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에 따르면 “과학적 설명”이라는 개념은 형용 모순이 아니며

경험주의적인 정신과 충돌할 필요도 없다. 필자가 “설명에 대한 밀적 접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과학적) 설명을 형이상학적 논의에 연루되지 않으면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어떤 의미에서 설명에 대한 밀적 접근은 과학이 기술의 영역에 있다는 뉘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서 설명이 형이상학의 영역에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리고 뉘험이 계승하는) 아이디어를 부정하는 접근이다.

## 2. 험펠과 초기 김재권: 형이상학 없는 설명이론의 시대

필자는 앞서 험펠이 설명에 대한 밀적 접근으로의 전이를 극단까지 몰고 간 철학자라고 평했다. 흔히 “연역-법칙적(D-N) 설명모델”이라고 불리는 그의 설명 이론은 사실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며 앞서 설명된 밀의 아이디어에 대한 형식 논리적 정교화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의 설명에 대한 정의는 잠재적 설명항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Hempel, 1948, pp. 163-164)

<잠재적 설명항에 대한 정의>

(언어 L의) 문장들의 순서쌍 (T, C)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단칭 문장 E에 대한 잠재적 설명항이 된다.

- (1) T는 본질적으로 일반화된 문장이며 C는 단칭 문장이다.
- (2) E는 언어 L에서 T와 C로부터 도출 가능하다.
- (3) T는 C를 그 귀결로 갖지만 E를 그 귀결로 갖지는 않는 최소한 하나의 기초 문장들의 집합과 양립 가능하다.

<설명항에 대한 정의>

문장들의 순서쌍 (T, C)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단칭 문장 E의 설명항이 된다.

- (1) (T, C)는 E에 대한 잠재적 설명항이다.
- (2) T는 이론이고 C는 참이다.

이 정의는 김재권이 지적하듯이 형식 언어 L 하에서의 “본질적 일반화”, “단창”, “도출”, “귀결”과 같은 전적으로 형식 논리적인 용어를 통해서 기술되고 있다.<sup>5)</sup> 이 점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개의 추가적인 특징에 주목해 보자. 우선 햄펠은 설명항을 바로 정의하지 않고 잠재적 설명항을 정의한 후 그것을 통해서 설명항을 정의한다. 이는 유사법칙(lawlikeness)을 통해서 법칙(law)을 정의하려 하는 굿맨적인 전통을 햄펠이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6)</sup> 햄펠은 본질적으로 의미론적인 개념인 참(truth) 개념을 배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통사론적인 방식으로 잠재적 설명항을 정의하고, 이 잠재적 설명항에 참 개념을 추가해 설명항을 정의하는 것을 통해서 대부분의 실질적 논의를 형식 논리학의 영역에 가두고자 한다. 다음으로 햄펠의 형식적 정식화에는 그 어디에도 인과라는 개념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설명과 인과를 상당한 정도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특징이다. 우리는 “왜 P가 발생했는가?”라는 질문에 흔히 “P는 Q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했다”라고 대답한다. 햄펠은 이런 우리의 일상 언어적 이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햄펠의 형식적 정식화 자체에는 법칙이나 입증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햄펠이 자신의 이론을 “법칙 연역적(D-N)

---

5) “폴 오펜하임과 함께 쓴 영향력 있는(seminal) 논문 ‘설명의 논리에 관한 연구’에서 형식 논리, 또는 논리적 이론의 통사론이 여전히 이론 개발의 주된 도구였다. 이 논문 2부에 나오는 법칙과 설명에 대한 이들의 형식적 정의들은, 비록 ‘(T, C)가 E에 대한 설명항이다’에 대한 정의에서 진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통사론적이다.” (Kim, 1999, p. 6) 여기서 “본질적으로 일반화된 문장”이란 어떤 일반화되지 않은 문장과도 동치가 아닌 일반화된 문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본질”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형식 논리적 개념이다.

6) 유사법칙적(lawlike) 문장은 참을 제외한, 법칙적 문장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문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용어법에 따르면 법칙은 참인 유사법칙적 문장이 된다. 유사하게, 햄펠과 오펜하임의 용어법에 따르면, 이론은 참인 본질적으로 일반화된 문장이며, 설명항은 참인 잠재적 설명항이 된다.

모델"이라고 부르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 이런 개념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sup>7)</sup> 햐펠은 "법칙"이라는 말 대신에 "본질적으로 일반화된"이라는 형식 논리학적 개념을 사용하고, 입증이라는 개념 대신 "기초 문장들로부터의 귀결"이라는 마찬가지로 형식 논리학적인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형식 논리학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개념만이 철학적으로 엄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당시 분석철학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생각을 햐펠이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햐펠 이론의 이런 특징들은 설명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접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시적으로 운동인(인과) 개념에 호소하고 있으며 그의 이론에 형식논리의 사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D-N 모델의 특징은 일체의 형이상학적 논의를 배격하고 형식 논리에 기반한 언어적 분석을 통해서 철학적 문제에 접근하려는 논리실증주의의 정신을 충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 점에서 햐펠의 이론은 형이상학에 연루되지 않는 설명 이론을 추구한다는 밀적 접근의 이상화 또는 극단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햐펠은 현상 너머의 어떤 것을 언급하는 형이상학적 장치들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형이상학적 논의 자체를 배제하려 했던 것이다.

김재권은 초기에 그의 스승이었던 햐펠의 이런 정신으로부터 별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의 설명에 관한 초기 연구를 대표하는 논문은 D-N 모델에 대한 잘 알려진 기술적인(technical) 반론과 관련되어 있다. 다음은 이런 기술적인 반론의 한 형태이다. (Salmon, 1989, pp. 21-22) 우선 T를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다( $(\forall x)Ix$ )"라고 해 보자. 그럴 경우 다음의 T'은 T의 하나의 논리적 귀결이다.

7) 잠재적 설명항의 세 번째 조건은 햐펠의 설명에 따르면 피설명항이 설명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자기 설명(self explanation)"을 배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동기 지워진 것이다. (Hempel, 1948, p. 163)

T':  $(\forall x)(\forall y)(Ix \vee (Py \supset My))$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거나 모든 철학자(P)는 남자(M)다)

이제, C를 “만약 콰인(q)이 불완전하거나 햄펠(h)이 철학자가 아니라면 햄펠은 남자이다  $((Iq \vee \sim Ph) \supset Mh)$ ”라고 해보자. 마지막으로 E를 “햄펠이 남자이다(Mh)”라고 하자. 그럴 경우 우리는 다음의 D-N 추론을 만들 수 있다.

T':  $(\forall x)(\forall y)(Ix \vee (Py \supset My))$

C:  $((Iq \vee \sim Ph) \supset Mh)$

E: Mh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것은 법칙일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이 햄펠이 남자라는 것에 설명적으로 유관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위의 추론은 D-N 모델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 T'은 (T가 참이고 T'은 T의 귀결이므로) 참인 본질적으로 일반화된 문장이며, C는 (Iq와 Mh가 참이므로) 참인 단칭 문장이다. 이 둘로부터 E는 도출 가능하다. 그리고  $\sim Iq$ 와 Ph로 이루어진 T'과 양립 가능한 기초 문장의 집합은 (C의 전건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 C를 귀결로 갖지만 Mh를 귀결로 갖지는 않는다.

이 문제가 불거진 1960년대에 제시된 가장 유명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는 김재권의 해결책이었다. 김재권은 다음의 추가적인 조건을 원래의 정의에 삽입할 것을 주장한다.

E는 C의 연언적 정상 형식의 어떤 연언지도 함축하지 않아야 한다. (Kim, 1963, p. 288)<sup>8)</sup>

8) 여기서 어떤 문장의 연언적 정상 형식은 그 연언지 각각이 원자 문장 또는 원자 문장의 부정의 선언이면서 원래의 문장과 동치인 (그리고 원래 문장에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원자문장만을 포함하는) 연언문장이다.



이 조건이 추가될 경우 위의 기술적 반례는 쉽게 극복된다. 위 논증의 단청문장, C를 연언적 정상 형식으로 만들면 ( $\sim Iq \vee Mh$ ) & ( $Ph \vee Mh$ )가 되는데, 피설명항 Mh는 이 연언적 정상 형식의 연언지들을 함축하며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대로, 설명적이지 않은 논증으로 판명된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 김재권이 D-N모델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기술적 반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햄펠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추가할 것을 권유하는 조건은 “연언적 정상 형식”, “함축” 등과 같은 순수하게 형식 논리적 장치들을 통해서 정식화되고 있으며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sup>9)</sup> 이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 볼 이 문제에 대한 김재권의 이후의 대응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방식이다. 이는 초기 김재권이 전적으로 자신의 스승이었던 햄펠의 영향권 안에서 철학적인 작업을 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0)</sup>

### 3. 실험주의와 중기 김재권: 경험주의적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형이상학의 시대

햄펠의 D-N 모델에 대해서는 크게 봐서 두 가지 흐름의 반례들이 제기되었다. 그 하나의 흐름은 위에서 설명된 기술적 반례들이다. 또 다른 흐름의 반례들은 기본적으로 D-N 모델이 인과적 방향성과 인과적

9) 김재권이 이 추가적인 조건을 제안하는 논문의 제목과 햄펠-오펜하임의 원래 논문의 제목을 비교해 보는 것은 현재 맥락에서 흥미롭다. 햄펠-오펜하임의 원래 논문은 “설명의 논리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을 갖고 있으며, 김재권의 논문은 “연역적 설명의 논리적 조건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두 제목 모두 설명 이론을 만드는데 형식 논리적 장치들이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0) 김재권은 1994년 여름 서울대에서 있었던 환갑 기념 세미나에서 본인이 대학원생이었을 때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사실상 금기어와 같았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유관성에 둔감한 이론이라는 특징을 이용한다. 이런 반례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흔히 브롬버거의 깃대 사례라고 알려진 것이다.<sup>11)</sup>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단순하다. 우리는 깃대의 높이와 태양의 고도로부터 깃대의 그림자의 길이를 연역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추론은 D-N 모델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며 실제로 우리는 이 추론이 설명적이라는 강한 직관을 갖는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깃대의 그림자의 길이와 태양의 고도로부터 깃대의 높이를 연역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다. 이 추론 역시 D-N 모델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우리는 이 추론이 설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비대칭성에 대한 가장 직관적인 설명은 깃대의 높이가 그림자의 길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그 반대는 그럴듯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설명이 옳은 설명이라면, D-N 모델은 순수하게 형식논리적으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인과”라는 개념을 설명 이론에서 배제해 버렸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 이론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하듯이 햄펠 이후의 설명이론, 특히 1980년대의 설명이론들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과 개념을 설명 이론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유행하게 된다. 이런 경향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W. 새먼과 D. 루이스이다.<sup>12)</sup> 이것은 햄펠 이후 설명 이론이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적 접근으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기껏해야 아주 약한 의미에서의 “예”이다. 이 시기의 설명 이론들을 지배하던 정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리는 “인과”와 같은 순수 형식 논리적으로는 포착될 수 없는 형이상학적 개념을 설명 이론에 도입해야 한다. 이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았다. 그러나 그것이 밀이 가졌던 경험주의적 정신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11) 새먼에 따르면 브롬버거는 실제로 깃대 사례를 출판한 적은 없으며, 그가 출판한 사례는 탑에 관한 것이었다. (Salmon, 1989, p. 189)

12) 새먼과 루이스의 이런 특징을 위해서 다음을 볼 것. (Lewis, 1986a; Salmon, 1984) 80년대에 나온 주된 설명 이론들 가운데, 인과 개념에 직접적으로 호소하지 않는 이론은 P. 키처의 통일 이론이다. (Kitcher, 1989) 이 이론에 대해서는 결론부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우리는 “인과”와 같은 개념들을 “경험주의적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형이상학적 장치”들을 통해 분석하고 그렇게 분석된 개념들을 설명 이론에 도입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밀적 프로젝트를 이어 나갈 수 있다. 여기서 “경험주의적 양심”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의 흄주의자와 반흄주의자들의 논쟁의 양상을 통해서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흄이 비판한 필연적 연결과 같이 관찰 가능한 현상들의 패턴으로 환원 불가능한 원초적인 힘이나 양상성을 전제하는 모든 입장을 경험주의적 양심에 거슬리는 형이상학적 장치들을 도입하는 입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sup>13)</sup> 따라서 경험주의적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인과 개념은 필연적 연결과 같은 개념에 호소하지 않는 인과 개념이 된다.

이 정신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흔히 신흘주의자로(neo-Humean) 불리는, 루이스의 이론을 살펴 보기로 하자. 루이스의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경험주의적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소위 “기술적 법칙 개념”에 기반한 법칙 이론을 옹호하고<sup>14)</sup>, 이 법칙 개념에 기반해서 반사실적 의존성 개념을 정식화하며, 반사실적 의존성 개념을 통해서 인과 개념을 정식화하고, 마지막으로 인과 개념을 통해서 설명 개념을 정식화한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술적 법칙 개념이다.<sup>15)</sup> 이후의 모든 단계는 기본적으로 경험주의적 양심과 관련하여 중립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반사실적 의존성 개념을 이해하던 그 이해의 중심에는 법칙이 있을 수밖에

13) 예를 들어, A. 버드는 다음과 같이 흄주의를 성격 규정한다. “우리는 어떤 입장이 만약 그것이 자연 안에 필연적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경우 흄주의적이라고 기술할 수 있다.”(Bird, 2007, p. 2)

14) 법칙에 대한 기술적 개념이라는 용어는 H. 비비의 용어이다. (Beebee, 2000) 흔히 루이스의 법칙 이론을 밀-램지-루이스(MRL) 이론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밀적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맥락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15) 이런 경험론적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형이상학적 장치들을 통해 다양한 철학적 개념들을 환원시키려는 프로젝트를 루이스는 “흄적 수반”이라고 부른다. (Lewis, 1986c, pp. ix-x)

없다.<sup>16)</sup> 다음으로, A가 B를 야기했다고 말하는 것은 A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B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아이디어는 자체로 직관적이며 특별히 경험론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A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A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아이디어도 자체로 직관적이며 경험론적인 편향성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그의 법칙 이론을 설명한다.

우연적인 일반화는 만약 그것이 단순성과 강도의 최선의 조합을 획득하는 참인 연역적 시스템들 각각에 정리로 나타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자연 법칙이 된다. (Lewis, 1973, p. 73)

이 이론의 배후에 있는 핵심 아이디어는 법칙이라는 것이 관찰 가능한 현상들을 가장 경제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리 시스템의 공리와 정리라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에는 우리의 현재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아이디어가 녹아 들어가 있다. 그 하나는 법칙이라는 것이 관찰 가능한 현상 배후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이해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법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술(description)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현상 배후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호소를 부정하고 과학을 기본적으로 기술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보려는 밀과 뒤헴의 아이디어에 대응한다.

김재권의 설명에 대한 중기 작업들은 크게 봐서 경험론적인 양심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이상학적 장치들을 개발하고 그 장치들을 설명 이론에 도입하는 특징을 갖는다. 우선, 앞서 언급된 D-N 모델에 대한 기술적 반례들에 대응하는 김재권의 새로운 해결책을 살펴보자. 김재권은 이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sup>16)</sup> 이것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위해서는 다음을 볼 것. (Kim, 2011, pp. 209-213)

설명항 안에서의 각각의 단칭 전제들은 사건, 또는 (원한다면) 선행 조건(antecedent condition)을 구체화해야 한다.(Kim, 1999, p. 13)

이 조건은, 선언적인 사건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이디어와 결합될 경우 위에서 소개된 바 있는 기술적 반례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검토한 바 있는 반례에서 단칭 전제는  $((Iq \vee \sim Ph) \supset Mh)$ 라는 조건문이었는데, 실질 조건문(material conditional)은 선언문과 논리적으로 동치이다. 따라서 선언적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조건적 사건도 존재할 수 없으며, 이런 전제를 갖는 논증은 자동적으로 설명적이지 않게 된다.

김재권의 이 새로운 제안은 기존의 제안이 가졌던 형식논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건 존재론이라는 형이상학적 장치에 호소하는 접근이다. 김재권이 강조하듯이 햐펠은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심지어 김재권의 사건 개념, 즉 속성 예화로서의 사건 개념과 비슷한 사건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햐펠과 초기 김재권이 사건 존재론에 호소해서 반례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사건 존재론에 대한 충분한 철학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사건 존재론이 경험론적 양식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정식화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사건 존재론을 문제 해결의 주된 원천으로 삼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김재권과 비슷한 시기에 기술적 반례들에 대한 형식 논리적 해결책을 제시한 D. 카플란에 대한 김재권의 회고적 논평에도 적용될 수 있다.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sup>17)</sup> 김재권은 다음의 구절을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다. “우리가 단칭 사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건’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시공간적 장소에서의, 또는 어떤 개별 대상에서의 다소간 복합적인 성질들의 발생을 지시하며 그 대상의 모든 성질을 지시하거나 그 시공간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지시하지 않는다.”(Kim, 1999, p. 12)

데이빈 카플란이 자신의 햄펠-오펜하임 정의에 대한 수정에서 설명에서의 초기 조건 진술문인 C가 기초 문장의 연언이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흥미롭고 또 교훈적이다. 여기서 기초 문장이라는 것은 원자 문장 또는 원자문장의 부정을 의미한다. ... 만약 우리가 과학 이론의 원초적 술어들이 그 이론에서 인정되는 중 또는 속성을 지시한다고 생각한다면 원자 문장이 어떤 사건, 즉 그 이론의 논의 영역 안에서의 어떤 속성의 예화인 사건의 발생을 긍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원자 문장의 부정을 어떤 사건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럴듯하다. 이것은 카플란의 요구 조건이, 비록 순전히 형식적인 근거에서 동기 부여된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종류의 형이상학적 제한조건에 대한 통사론적 시행(enforcement)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 1999, pp. 19-20)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재권이 초기의 자신, 그리고 카플란의 해결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후에 사건 존재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철학적으로 정련된 사건 이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재권의 이론에 따르면 사건은 실체, 속성, 시간으로 구성된 복합 구조를 갖는다.(Kim, 1966, pp. 231-232)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대상에 의해서 속성이 예화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현재 맥락에서 이해된 “경험론적 양심”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말로 보인다.

김재권이 초창기 햄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을 철학적 논의에도입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관심을 가졌던 개념은 사건만이 아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가 철학적으로 많은 기여를 한 또 하나의 개념은 수반(supervenience)이라는 개념이었다. 그는 다음의 강수반 정의를 받아들인다.

임의의 세계  $w_j$ 와  $w_k$ 에 대해서, 그리고 임의의 대상  $x$ 와  $y$ 에 대해서, 만약  $x$ 가  $w_j$ 에서  $y$ 가  $w_k$ 에서 갖는 동일한 B-속성들을 갖는다면,  $x$ 는  $w_j$ 에서  $y$ 가  $w_k$ 에서 갖는 동일한 A-속성들을 갖는다. (Kim, 1987, p. 317)

이 정의에 관해서 세 가지 점이 현재의 문맥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는

이 정의가 기본적으로 가능 세계에 대한 양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가능세계에서 언급되는 모든 것은 대상의 속성 예화, 즉 김재권적인 사건 개념에서 호소되는 개념들이다. 다음으로 김재권의 수반 개념은 가능세계들을 모두 고려한 속성 예화의 패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실 세계의 속성 예화의 패턴은 “모든 C-섬유 활성화 사례는 고통 사례이다”와 같은 단순 규칙성에 불과한 반면 김재권이 수반 개념으로 포착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 세계를 통틀어** 모든 C-섬유 활성화 사례는 고통 사례이다”와 같은 속성 예화의 패턴이라는 것이다. 이는 수반 관계가 앞서 언급한 현상의 통일적, 체계적 기술의 파생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재권이 이런 강수반 개념을 약수반에 **추가해** 정식화하려고 했다는 것이 주목 되어야 한다. 이것은 헤어나 데이빈슨 등이 수반 개념을 정식화할 때 사용했던 개념(김재권의 용어법에 따르면 약수반 개념)이 “속성들 사이의 직관적인 “결정” 또는 “의존” 개념을 포착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으로 보이기”(Kim, 1987, p. 316) 때문이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 시기에 김재권은 수반 개념을 통해서 의존 개념을 포착하고자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특징들을 종합해서 김재권이 이 시기에 가능 세계에 대한 양화가 추가된 일종의 규칙성 이론으로 의존 개념을 포착하고자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루이스가 그렇게 주장하듯이) “가능세계”라는 개념이 경험론적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이라면<sup>18)</sup> 김재권의 수반 개념은 경험론적인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채로 의존 개념을 포착하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의존 개념은 김재권의 설명 개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18) 가능 세계에 대한 루이스의 생각은 다음을 참조. (Lewis, 1986b) 루이스는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가 경험론적인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가능 세계들도 경험론적인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루이스의 양상 실재론에 따르면, 가능세계들은 현실세계와 동일한 존재론적 위상을 가지며, 필연적 연결은 애초부터 이해 가능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루이스의 필연적 연결의 이해 불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다음을 참조할 것. (Lewis, 1983, p. 366)

한다. 이 시기의 김재권의 설명에 대한 생각은 다음의 구절에 잘 드러나 있다.

내가 사용할 핵심 개념은 의존이라는 개념이며, 나의 주장은 다양한 종류의 의존 관계가 설명의 객관적인 대응물이 된다는 것이다.  
(Kim, 1994, p. 67)

김재권이 설명의 객관적 대응물로서의 의존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관계는 핵심적으로는 인과적 의존 관계와 (그가 “부분전체론적 수반”이라고도 부르는) 부분전체론적 의존 관계이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심신 수반 관계와 평가적 수반 관계를 추가한다.(Kim, 1994, pp. 67-68)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건대, 이 시기 김재권의 설명에 대한 접근은 앞서 과학적 설명에 대한 루이스의 접근의 형이상학적 확장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루이스가 경험론적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인과 개념, 즉 기술적인 인과 개념을 통해서 과학적 설명 개념을 설명하려고 한 것처럼 김재권은 경험론적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기술적인 수반 개념을 통해서 형이상학적 설명 개념을 포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시기 김재권은 한편으로는 루이스 등이 주도한 경험론적으로 허용 가능한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확보하고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D-N 모델이 가졌던 문제들을 해결하려던 시대의 풍조에 동조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 개념과 수반 개념 등을 철학적으로 세련되게 정식화하는 것을 통해 그런 풍조가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김재권은 시대 정신을 따른 철학자이기도 하고 시대정신을 촉발한 철학자이기도 한 것이다.

#### 4. 아리스토텔레스로의 복귀와 후기 김재권: 경험주의적 양심에 연연하지 않는 형이상학의 시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신흥주의적 접근의 퇴조는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된다. 이런 경향성은 도처에서 발견되지만 현재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의존성 개념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김재권은 1980년대에 수반 개념을 통해서 형이상학적 의존 개념을 포착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그러나 김재권의 생각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변화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수반 개념이 형이상학적 의존 관계를 포착하는데 적절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의 이런 생각은 다음의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수반은 형이상학적으로 깊은 설명적 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성 공변의 패턴에 관한 현상적 관계일 뿐이다. (Kim, 1998, p. 10)

김재권이 이렇게 수반에 대해 의미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한 것은 수반의 형식적 조건을 충족하지만 직관적으로 의존적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전통적인 서양 철학적인 신 개념에 따르면, 신은 존재한다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모든 세계에 존재한다. 이는 신의 존재가 모든 사실, 예컨대 김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사소하게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재권이 존재하는 모든 세계에 신이 존재할 것이므로 사소하게 김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믿는 어느 누구도 신의 존재가 김재권의 존재에 형이상학적으로 의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 반례는 신의 존재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만든 반례이다. 그렇다면 필연적인 존재의 경우 의존성 관계에서 배제해 버리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이 모든 세계에 존재한다면 신의 단집합(singleton) 역시 모든 세계에 존재한다. 만약 우리가 필연적 존재를 의존될 수 없는 존재로 배제하면 신의 단집합이 신에 의존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받아들이 수 없는 결과다. 이런 고려들은 결국 철학자들에게 수반 관계처럼

가능세계안에서의 속성 사례의 패턴을 통해서 의존 관계나 환원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희망이 없는 시도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었다.<sup>19)</sup> 결과적으로 오늘날 과거에 수반 관계로 포착하려고 했던 것은 21세기 들어와서는 주로 원초적인 근거 부여(grounding) 관계로 이해된다.<sup>20)</sup> 이에 따라, 의존 관계를 통해서 설명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한때 김재권이 그랬던 것처럼 수반 개념에 호소하기 보다는 근거 부여 관계에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B. 스코우는 최근 그의 최근 책에서 “왜-이유(reasons why)는 원인이거나 근거(ground)이다”(Skow, 2016)라고 주장한다. 물론 근거 부여 관계가 원초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근거 부여 관계로 형이상학적 의존 관계를 포착하려는 시도가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자체로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이 설명에 대한 밀적 접근을 완전히 포기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근거 부여 관계를 원초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근거 부여 관계가 관찰 가능한 현상에 관한 사실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sup>21)</sup>

수반의 몰락과 그에 따른 근거 부여의 유행은 현상들의 패턴을 통해서 설명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김재권의 또 다른 철학적 기여를 보여준다. 김재권은 자신이 정식화에 앞장 섰던 수반 개념을 스스로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이론의 영역에서 중요한 변화를 촉진한 셈이다. 이제 우리

19) 환원 관계를 수반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은 다음을 볼 것. (Fine, 2001, pp. 10-11)

20) 근거 부여 관계를 원초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다음을 볼 것. (Fine, 2015; Schaffer, 2009) 이런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종종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로 이해된다는 것은 교훈적이다.

21) 예컨대 F. 코레이아는 근거 부여 관계가 본질 개념을 통해서 분석 가능하다고 생각한다.(Correia, 2013) 그러나 본질 개념이 밀적 접근에서 용인 가능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본질을 가능세계의 분포를 통해 분석하려는 시도, 예컨대 양상주의(modalism)에 대한 고전적 반론을 위해서는 다음을 볼 것. (Fine, 1994)

는 형이상학 없는 설명 이론뿐만 아니라 경험론적 양심에 어긋나는 형이상학 없는 설명 이론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더 익숙해져가고 있다.

## 5. 설명과 기술의 짧은 동거 그리고 헤어짐

이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다시 과학은 현상의 기술에 관한 것인지 현상 너머의 형이상학적 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뒤헴의 주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루이스의 설명 이론은 그의 기술적 법칙 이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과 기술의 뒤헴적 이분법에 저항한다. 그러나 이런 특징은 사실 한 때 김재권이 시도했던 수반 관계로 (형이상학적) 설명 개념을 이해하려는 시도에도 나타난다.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수반 관계는 가능 세계들 전체에 나타나는 속성 예화의 패턴에 대한 기술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P. 키처의 설명 이론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앞서 블룸버거의 깃대 사례가 촉발한 문제의 결과 1980년대부터 다양한 인과적 설명 이론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설명에 인과 개념을 도입하려는 풍조에 저항하는 이론도 있었으며 키처의 통일 이론이 바로 그런 이론이다. 그리고 오늘날 이 두 개의 흐름은 흔히 현대 설명 이론의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진다.<sup>22)</sup> 이 논문에서 매우 기술적인 키처의 이론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키처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비교적 간단하다. 키처에 따르면 우리 믿음의 총체(K)를 가장 잘 체계화 하는 도출 시스템이 설명적 참고 E(K)이며, 이 설명적 참고에 있는 도출 패턴을 사용하는 건전한 도출이 설명적 도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된 키처의 설명 이론은 그 기본 아이디어에서 루이스의 법칙 이론과 대단히

22) 예를 들어 M. 스트레븐스는 “과학적 설명에 대한 두 개의 주된 현대적 접근법은 인과적 접근법과 통일 접근법이다”(Strevens, 2004, p. 154)라고 정리한다.

유사하다.<sup>23)</sup>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키처의 이론이 인과 개념에 호소하지 않는 이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이상학적 개념 없이 구축될 수 있는 종류의 이론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루이스는 자신의 법칙 이론은 다음과 같이 자연적 속성이라는 형이상학적 장치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어떤 시스템이건 그것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게 정식화될 수 있다. 어떤 시스템 S에 대해서 F가 S가 성립하는 세계의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들에만 적용되는 술어라고 하자. F를 원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S를  $\forall xFx$ 라는 하나의 공리로 공리화하라. 만약 절대적인 단순성이 이렇게 쉽게 획득될 수 있다면 이상적인 이론은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하기도 할 것이다. ... 문제의 해결책은 원초적 어휘에 대한 이런 빼놓아진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 공리에 등장하는 원초적인 어휘가 완전하게 자연적인 속성들만을 지시하게 하라.(Lewis, 1983, pp. 367-368)

사실 키처 자신도 이런 문제가 자신의 이론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공허한 전제들을 이어 붙이거나 하는 것에 의해서 게리맨더링을 하지 못하게 해줄 수 있는 패턴 개별화에 대한 어떤 요구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요약된 전략은 두 개의 패턴을 하나의 것으로 위장하는 시도이며, 이것은 우리가 인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구분을 만들어 내고, 우리가 실재적이라고 생각하는 유사성을 무시하는 것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 도전에 대처하는 명확한 방식은 도식적 문장에서 발생하는 술어들, 채우기 교본을 정식화하는데 사용되는 술어들, 그리고 부류화에서 나타나는 술어들이 K가 정식화되는 언어의 투사 가능한 술어들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Kitcher, 1989, p. 482)

<sup>23)</sup> 바로 이 유사성에 근거해서, B. 로워는 규칙성으로서의 루이스적인 법칙이 설명적 힘을 가질 수 없다는 암스트롱의 비판(Armstrong, 1983, pp. 40-41)에 대답한다. 그에 따르면 루이스적인 법칙은 통일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한다. (Loewer, 1996, p. 113)

오늘날 실재적 유사성과 투사 가능한 술어를 확보하기 위한 표준적인 해결책이 루이스적 자연적 속성의 도입이라는 것을 고려할 경우 키처의 해결책은 루이스의 해결책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루이스와 키처의 이런 유사점은 이들이 모두 궁극적으로 설명을 기술의 영역에 위치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루이스는 현상의 효율적 기술이라는 아이디어를 설명을 설명하는데 바로 도입하지 않고 법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입했다면 키처는 동일한 아이디어를 설명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입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서는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현상을 넘어가는 형이상학적 장치 없는 설명 이론을 만들자는 밀적 접근법의 정신과 설명과 기술은 별개의 영역의 것이라는 뒤햄의 생각에 저항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 둘이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상을 넘어서는 형이상학의 영역에 호소하지 않으면서 과학적 설명에 대한 제거주의를 거부하는 길이 현상에 나타나는 패턴의 기술로부터 설명적 관계가 나온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방식 외에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개념적으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설명에 대한 밀적 접근은 설명과 기술의 이분법에 대한 부정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했던 20세기 중반 이후의 설명 이론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햄펠은 밀적 접근을 극단화시키면서 모든 형이상학적 논의를 설명 이론에서 배제하고 순수 형식 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그 결과 햄펠은 법칙과 설명에 대하여 단순 규칙성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법칙적 관계, 또는 설명적 관계란 단순히 규칙성 또는 패턴에 대한 기술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살펴 본 바 있듯이 이런 이론은 너무나 많은 패턴을 법칙적 또는 설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단순히 패턴이 아니라 특별한 종류의 패턴만이 설명적 힘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전략이 바로 가장 경제적인 기술을 가능하게 해 주는 패턴이 설명적인

패턴이고 그렇지 않은 패턴이 설명적이지 않은 패턴이라는 루이스와 키처가 호소하는 아이디어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경우 더 이상 순수하게 형식 논리적으로 설명 이론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이 가장 경제적인 기술이냐는 경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sup>24)</sup> 그리고 앞서 살펴 보았듯이 사소한 경제적 기술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속성이나 사건과 같은 형이상학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적어도 경험론적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형이상학적 장치에 형이상학적 논의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 밀적 접근을 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며, 설명과 기술의 이분법을 여전히 부정할 수 있다.

단순 규칙성 이론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현상적 패턴 배후에 있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장치, 예컨대 필연적 연결이라던가 원초적 근거 부여 관계와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패턴이 아니라 패턴을 만들어 내는 그 배후에 있는 것이 설명적 힘을 갖게 되는 결과가 생겨 더 이상 밀적 접근은 불가능해지며 설명과 기술의 이분법은 부활한다.

햄펠 이론의 붕괴 이후의 설명 이론의 역사는 결국 첫 번째 방법으로 햄펠 이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두 번째 방법으로 햄펠 이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서의 이행의 역사였다. 이는 어떻게 서든지 기술과 설명의 이분법에 저항하려던 햄펠적 시도를 우리가 마침내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재권의 철학적 기여를 이 구도에 맞춰 설명하면 그는 첫번째 방법의 이론적 도구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

24) 깃대 사례에 대한 키처의 대응 방식은 왜 어떤 도출 시스템이 가장 경제적인 도출 시스템인지의 문제가 경험적인 문제인지를 잘 드러내 준다. 키처에 따르면 우리가 태양의 고도와 그림자의 길이를 통해서 깃대의 높이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현실 세계에서는 (우연적으로) 그림자가 없는 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의 길이를 통해서 높이를 도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사례에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를 갖기 때문이다. (Kitcher, 1989, pp. 484-487) 이런 문제 때문에 루이스는 자신의 법칙 이론을 설명하면서 굿맨이나 햄펠이 받아들였던 유사법칙성(lawlikeness) 개념의 사용을 포기한다. (Lewis, 1983, p. 367)

역할을 했던 철학자였으며, 그 이론적 도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두 번째 방법으로의 이행에 일조한 철학자였다. 그는 설명과 기술의 짧은 동거를 가능하게 했던 철학자였으며 그 동거가 마침내 끝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Armstrong, D. M. (1983). *What is a law of nature?* Cambridge [Cambridgeshir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ebe, H. (2000). The non-governing conception of laws of nature (Ramsey-Lewis theory, thought experiment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1(3), 571-594.
- Bird, A. (2007). *Nature's Metaphysics: Laws and Properties*: Oxford University Press.
- Correia, F. (2013). Metaphysical Grounds and Essence. In H. e. al. (Ed.), *Varieties of Dependence: Ontological Dependence, Grounding, Supervenience, Respons-Dependence* (pp. 271-296): Muenchen: Philosophia.
- Fine, K. (1994). Essence and Modality. *Philosophical Perspectives*, 8, 1-16.
- Fine, K. (2001). The Question of Realism. *Philosohers' Imprint*, 1(1), 1-30.
- Fine, K. (2015). Unified Foundations for Essence and Ground. *Journal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1(2), 296-311.
- Freeland, C. A. (1991). Accidental Causes and Real Explanations. In L. Judson (Ed.), *Aristotle's Physics : a collection of essays* (pp. 286 p.). Oxford [England] New York: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 Hempel, C. a. P. O. (1948). Studies in the Logic of Explanation. *Philosophy of Science*, 15, 135-175.
- Kim, J. (1963). On the Logical Conditions of Deductive Explanation - Discussion. *Philosophy of Science*, 30(3), 286-291.
- Kim, J. (1966). On the Psycho-Physical Identity Theory.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3, 277-285.



- Kim, J. (1987). “Strong” and “Global” Supervenience Revisited.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48(2), 315-326.
- Kim, J. (1994). Explanatory Knowledge and Metaphysical Dependence. *Philosophical Issues*, 5.
- Kim, J. (1998). The Mind-Body Problem After Fifty Years. In A. O’Hear (Ed.), *Current Issues in Philosophy of Mind* (pp. 3-21): Cambridge.
- Kim, J. (1999). Hempel, explanation, metaphysics. *Philosophical Studies*, 94(1-2), 1-20.
- Kim, J. (2011). *Philosophy of mind* (3rd ed.). Boulder, CO: Westview Press.
- Kitcher, P. (1989). Explanatory Unification and the Causal Structure of the World. In P. Kitcher & W. C. Salmon (Eds.), *Scientific explanation* (pp. 410-505).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ewis, D. (1973). *Counterfactuals*. Oxford,: Blackwell.
- Lewis, D. (1983). New Work for a Theory of Universal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61(4), 343-377.
- Lewis, D. (1986a). Causal Explanation. In *Philosophical Papers* (Vol. II, pp. 214-24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D. (1986b). *On the plurality of worlds*. Oxford, UK ; New York, NY, USA: B. Blackwell.
- Lewis, D. (1986c). *Philosophical papers* (Vol.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oewer, B. (1996). Humean Supervenience. *Philosophical Topics*, 24(1), 101-127.
- Mill, J. S. (1963). *A System of Logic*.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Moravcsik, J. M. E. (1974). Aristotle on Adequate Explanation. *Synthese*, 28(1), 3-17.

- Psillos, S. (1999). *Scientific realism : how science tracks truth*. London ; New York: Routledge.
- Ruben, D.-H. (1990). *Explaining explan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almon, W. C. (1984). *Scientific explanation and the causal structure of the worl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lmon, W. C. (1989). Four Decades of Scientific Explanation. In P. Kitcher & W. C. Salmon (Eds.), *Scientific explanation* (pp. xiv, 528 p.).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chaffer, J. (2009). On What Grounds What. In D. J. Chalmers, D. Manley, & R. Wasserman (Eds.), *Metametaphysics* (pp. 347-383): Oxford.
- Skow, B. (2016). *Reasons Why*: Oxford.
- Strevens, M. (2004). The Causal and Unification Approaches to Explanation Unified--Causally. *Nous*, 38(1), 23p. doi:10.1111/j.1468-0068.2004.00466.x
- 이재호. (2014). 아리스토텔레스, 뒤헴, 밀, 그리고 설명에 관한 네 번째 길. *철학사상*, 53, 165-202.

|        |              |
|--------|--------------|
| 논문 투고일 | 2020. 07. 15 |
| 심사 완료일 | 2020. 08. 10 |
| 게재 확정일 | 2020. 08. 10 |

## Hempel, Explanation, Kim

Jaeho Lee

---

In this paper, I will compare the trajectory of analytic philosopher's thinking about metaphysics with the changes in Kim's thinking about explanation since the mid-20th century. In doing so, we will examine how the changes in the status of metaphysics under the analytic tradition is related to Kim's philosophical work.

**Keywords:** Hempel, Kim, Explanation, Description